

가스요금·택시비 오를까...광주시 인상 필요성 크지만 고민

최종용역 결과 요금 인상 불가피 도시가스요금 7년째 동결 지속 적자 해양에너지, 루베당 40원 인상해야 택시비도 1km당 운송원가 조정 필요

도시가스와 택시요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용역결과가 제시돼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의 경영난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원가를 대폭 인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고품가에 소상공인 뿐 아니라 시민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2025년 광주시 도시가스요금 인상 최종용역 결과가 제출됐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밝힐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요금인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 취재결과 소매공급비용 기준으로 1루베(1㎡)당 3원 인상안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도시가스요금을 3.56% 인상하는 안이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7년간 동결했다. 같은 기간 매년 용역 결과는 인상안으로 나왔지만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했다. 광주시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1.9591원(1MJ기준)으로 고정됐지만, 다른 특·광역시들은 모두 인상했다. 광주시 도시가스 독점 사업자인 (주)해양에너지

는 장기간 동결조치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에너지 측은 용역 자체도 광주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루베당 3원 인상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양에너지 측은 루베당 40원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적자로 도시가스 배선 등 신규 인프라를 설치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해양에너지측의 설명이다. 실제 일부 신규 아파트 단지나 상업건물에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택시요금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3년 인상된 택시요금에 대한 용역 결과 1km당 운송원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1일 진행된 광주시 2025년 택시적정운임·요금 산정 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광주 택시의 1km당 운송원가가 2년 전 요금 인상 당시보다 13.3% 올랐다. 2023년 택시 운송 1km당 단가는 1440.9원이었으나 올해는 1633.2원으로 올랐다.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23년 1000원이 인상돼 4300원이지만, 서울·부산·인천은 4800원, 그 외 지역은 4300~4500원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 기본거리(1.6~2km), 거리요금(125~135m당 100원), 시간 요금(30~33초당 100원) 등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요금 체계 기준 5km 평균 거리 요금은 광주가 72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은 8100원, 대구 7800원, 부산 7700원, 울산 7600원, 대전 7400원이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 거리 조정, 기본요금 인상 등 총 16가지 안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도시가스와 택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금액보다 2% 인상이 될 경우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담당자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뿐 구체적으로 인상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역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특·광역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현황

(단위: MJ/원·광주시 제공)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광주	요금동향 동결 소매공급비용 1.9591	동결 1.9591	동결 1.9591	동결 1.9591	동결 1.9591
전남	요금동향 인상(0.04%) 소매공급비용 2.6727	인상(2.2%) 2.7316	인상(4.8%) 2.8622	인상(8.6%) 3.1074	인상(2.5%) 3.1866
서울	요금동향 인상(0.4%) 소매공급비용 1.7398	동결 1.7398	동결 1.7398	인상(4.5%) 1.8188	인상(10.8%) 2.0152
인천	요금동향 동결 소매공급비용 1.5281	인상(4.2%) 1.5661	동결 1.5661	인상(2.1%) 1.5990	인상(1.0%) 1.6007
부산	요금동향 동결 소매공급비용 2.0349	동결 2.0349	동결 2.0349	인상(9%) 2.2190	인상(3.0%) 2.2851
대구	요금동향 인상(0.3%) 소매공급비용 2.1334	인상(0.7%) 2.1474	인상(2.5%) 2.2015	인상(7%) 2.3557	인상(9.5%) 2.5795
대전	요금동향 동결 소매공급비용 2.3213	인하(0.2%) 2.3177	인상(5.0%) 2.4320	인상(3.0%) 2.5001	인상(9.8%) 2.7440
울산	요금동향 인상(26%) 소매공급비용 1.0617	인하(7%) 0.9880	동결 0.9880	인상(7.3%) 1.0600	인상(9.8%) 1.1639

■ 택시 운송원가산정결과(2025년)

(1km당 운송원가·광주시 제공)

구분	1회 영업원가 (5.00km)	1회 영업원가 (5.66km)	1km당 단가
2023년	7,204.3	8,155.2	1,440.9
2025년	8,165.9	9,243.8	1,633.2
증감률	13.3%	13.3%	13.3%

한신협 “정부, 지역언론 균형발전방안 제시해야”

공동성명 “방송 기금운용 분리하는 지역신문 위기” 지원책 마련을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하 한신협)는 13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신협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 기획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지역언론 지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신협은 성명에서 “지역에서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방송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약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역방송사 지원 확대를 전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신협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각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신문은 숫자적으로도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많다”면서 “더욱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매년 정부로부터 엄청난 평가와 심사를 거쳐 1개 언론사당 3000만~7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 또한 모두 기획취재 등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사용될 뿐, 경영사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신협은 또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신협은 광주일보와 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사·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5·18 언론상’ 우수상 수상

5·18기념재단·광주전남기자협회, ‘유공자 위자료...형평성 논란’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류성호)는 2025년 5·18언론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의 ‘서울법원과 광주법원 기준 달라 5·18 유공자 위자료 최대 4배 차이...형평성 논란’ 등을 선정(우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병호 기자

서울법원과 광주법원 기준 달라 5·18 유공자 위자료 최대 4배 차이...형평성 논란’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상에는 무등일보의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가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가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또 JTV 전주방송의 특집다큐 ‘전북대생 이세종 5·18 최초의 희생자’가 뽑혔다.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와 전남일보 편집국장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설가로 활동 중인 문순태 작가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025년 최저임금

10,030 원

시간당 1만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정부 RE100산단 조성

▶1면에서 계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RE100 산단정책 발표로 전남도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렸다”며 “그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우리 전남도의 청사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는 2030년까지 2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통해 ‘서남권 인구 50만 에

너지 혁신성장벨트’와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AI칩퓨팅 파크, 미래차 국가 산단, 첨단3지구 에너지 자립 산단 등에 RE100 산단 조성을 힘쓰고 있고 이 대통령 지역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전남 서해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거리상 가장 가까운 광주에서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칩단지과 미래차 국가산단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RE100 산단 조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배인택(491126-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서창방산길 16-58(서창동)
 피상속인 망 배인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3947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4일

• 상속인 : 배윤재(750522-1XXXXXX)
 군산시 요죽길 76, 104동 1403호 (오식도동, 한성빌하우스)
 • 신고기간 : 2025. 7. 14. ~ 2025. 9.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배윤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신윤식(610510-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광성군 임면길 12(임면)
 피상속인 망 신윤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3929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4일

• 상속인 : 김경금(641013-2XXXXXX)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2-5, 102동 1002호(월계동, 첨단금호타운)
 • 신고기간 : 2025. 7. 14. ~ 2025. 9.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경금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 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